

## 삼성 '청정스테이션' 獨 미세먼지 차단 인증

삼성전자가 제트 에어 청정스테이션도 미세먼지 등 배출 차단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3일 '청정스테이션'이 최근 독일 유력 시험·인증기관인 SLG와 영국 알레르기협회 BAF에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성능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청정스테이션은 삼성의 독자 기술인 '에어필스' 기술을 적용해, 삼성 무선 청소기 제트의 먼지통을 간편하게 비울 수 있는 먼지 배출 시스템이다. 에어필스는 모터의 입구를 제어하며 공기압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때 발생한 기



2020년형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와 청정스테이션.

류가 먼지통 내부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삼성 특허 기술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0년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1일 '해의 주재원 파견자 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목표로 경영 전략 수립부터 부문별 실무 노하우를 포괄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견기업은 최대 100%, 다른 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80%까지 교육비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격월마다 총 4회를 진행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과정은 해외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재원의 역할, 효과적인 현지 사업 관리 방안 등 현장 업무 역량 제고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유 키보드 5개사, 송파구와 안전운영 의지 다져  
공유 키보드 5개사가 서울 송파구가 지난 2일 주최한 '공유전동 키보드사 간담회 및 안전 결의 대회'에 참석해 안전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씽씽 윤문진 대표가 공유 전동 키보드 참여 5개사를 대표해 송파구 '안전 운영 결의문' 낭독하고 있다. /쌍성

## '호국보훈의달' 롯데호텔, 감사마음 준비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 마련

롯데호텔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숨은 영웅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롯데호텔 17개 전 체인(시그니엘/롯데호텔/롯데시티호텔/



L7호텔)에서 선보이며,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투숙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에몬스, 드라마 '한번다녀왔습니다' 지원

에몬스는 현재 전체 시청률 1위로 고공 행진중인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작 지원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전국 30.9% (닐슨코리아 제공)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돌파해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 케이블 등을 통틀어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번 드라마의 제작지원에 나선 에몬스가구는 극중 송가희(오윤아 분),



송가희 역(오윤아 분) 침실을 장식한 클레어 침실시리즈.

송다희(이초희 분)의 침실공간에 클레어 침실시리즈와 스타일리쉬 그레이 침실시리즈 등 주요공간에 다양한 제품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 우리에게 앨런 머스크는 없나



윤 휘 중의  
잠시 실험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온통 우울한 사건 투성이인 가운데, 모처럼 밝은 소식이 우리 귀를 번쩍 띄이게 만들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22분(현지시간)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로 잘 알려진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민간인을 태운 '크루 드래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려 도킹까지 성공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주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급인력, 안보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인이 추진한다는 것은 꿈도 못꿨던 분야였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남들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꿈을 키웠고, 마침내 성공의 축배를 들 수 있게 됐다.

1971년생인 머스크는 24세에 집투(ZIP2)라는 회사를 창업해 1999년 컴팩에 매각한 뒤 돈을 만졌다. 그 뒤 엑스닷컴이란 기업을 창업해 다시 이베이에 매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자금을 무기로 머스크는 인터넷, 우주공

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민간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 역시 2002년 6월에 머스크가 설립한 세번째 회사다.

이쯤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있다. '한국에는 왜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없나'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혁신이 없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앨런 머스크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창조적 파괴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다. 그런 이력 때문인지 머스크의 꿈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머스크는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자기부상열차 하이퍼루프나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연료 비행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프로젝트 등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분야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업 초반 그가 벤처기업을 매각하며 벌여놓은 돈이 그의 꿈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밑천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에게 '모험정신'이 사라진 것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2000년대 초

반부터 포털, 게임 등의 분야에서 부를 일군 이들은 지금 웬만한 대기업을 우습게 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최근 코로나19로 게임 등의 벤처기업 시가총액은 국내 10대그룹 상위 기업들보다 많을 정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에게 혁신과 도전은 사라졌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규제·견제 탓도 있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게임의 사행성, 포털의 독과점 논란 등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창업 1세대들은 전문경영인들을 앞에 내세우고는 은둔의 삶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들이 처음 만들어 성공한 사업 아이템 이후 '혁신'에 가까운 신규 아이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에겐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굴뚝산업에 종사해 온 전통적인 '재벌'들보다 못한 게 현실이다. 한 때 젊은 예비창업자들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을 롤모델 삼아 실패를 두려워않고 창업 현장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예비기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선배들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산부잡자 yjh@metroseoul.co.kr

## KB국민은행, 적십자회비 3억원 기부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 활용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동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적십자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와 어르신, 다문화 가족, 국내외 재해 이재민, 북한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마장동, 경기도 성남, 강원도 춘천 및 광주광역시에 '사랑의 빵 나눔터'를 조성해 왔으며, 매월 임직원들과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제빵 봉사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

으면 좋겠다"며 "전달한 적십자회비를 통해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인사

◆뉴스핌 △유통부동산부장(부국장) 김정태 △정치부 외교담당 선임기자(부국장) 이영태 △사회문화부장 김동선 △산업부장 이강혁 △사회문화부 정책팀장 오승주 △사회문화부 선임기자 김세혁 △유통부동산부 차장 이동훈 △사회문화부 차장 김용석 김연순 박준현 △증권부 차장 김신정 △산업부 차장 김지나 김선엽 △미래산업부 차장 정경환

◆한국정경신문 △IT과학부장 겸 디지털머니부장 김진욱

◆뉴스웨이 △이성인 뉴미디어부 부장대우 △안민 뉴미디어부 부장대우 △정백현 정경부 차장 △이어진 산업부 차장대우 △장기영 정경부 차장대우 △이지숙 산업부 차장대우 △김선민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홍연택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박영호 온라인개발부 과장

장대우 △김선민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홍연택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박영호 온라인개발부 과장

### 부음

▲홍순우씨 별세, 홍성희(울지대학교 총장·의료법인 울지병원 이사장)·홍정욱(카리스트 교수)·홍상욱(사업)씨 부친상, 박준영(울지재단 회장)씨 장인상 = 3일, 노원을 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2275-3101

▲이기화씨 별세, 안인규(충북 진천경찰서 정보계장)씨 모친상 = 3일 오전 6시 40분, 진천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43-532-4405

▲류기준(전 영광초 교장)씨 별세, 류선경(전 수피아여중 교사)·혜경(서광병원 원장)·종선(전 신한은행 지점장)·경주(서광병원 경영원장)·상욱(서광병원 정형외과 원장)·상완(순천 성가톨릭병원 흉부외과 과장)씨 부친상, 윤창현(전 현대종합상사 호남지사장)·서해현(서광요양병원 원장)·김규성(주식회사 예오 대표)씨 장인상, 이일지·윤미경·허병영(서울 삼성의료원 마취과 교수)씨 시부상 = 3일 오전 4시 15분, 광주 서구 천치장례식장 2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062-527-1000

▲김정돌씨 별세, 김상우(청구건설 대표)·상업(태양건설 대표)씨 부친상 = 3일 오전 1시 23분, 대구 동구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201호, 발인 5일 오전 6시. 053-961-4444